

## 이재명 대통령 오는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 개최 “관광수도 꿈꾸는 제주의 미래 함께 모색”

취임 후 첫 방문... 청와대, 미팅 참석 도민 200명 모집  
행정체계 개편·제2공항 등 제주현안 대통령 입장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 취임 후 첫 제주 방문에 나선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등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도민들과 함께 제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유채꽃 피는 따스한 봄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면서 제주 타

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가는 타운홀 미팅, 그 열두 번째 장소는 대한민국의 가장 특별한 섬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소개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주) 관광과 문화,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이러한 제주의 강점들이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섬’이자, 머무는 관광과 K-컬처가 결합된 ‘세계적 관광수도’, 그리고 ‘지역경제 혁신 중심지’로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갈 제주를 꿈꾼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다.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제주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할 도민 2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며,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12시까지로 네이버폼에서 접수한다.

한편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제주 관련 각종 지원책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5극3특 체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3특 중 만형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아직까지 체감되는 발전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타운홀 미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타운홀 미팅에는 오영훈 제주지사과 김한규·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오영훈·문대림·위성곤 세 후보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오늘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 전면 시행 행정기관·공기업·출자 출연기관·산하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지난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차량 5부제는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주 1회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1·6번, 화요일에는 2·7번, 수요일에는 3·8번, 목요일에는 4·9번, 금요일에는 5·0번 공직자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과 사회적 배려를 위해 경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등은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5부제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이 약 20%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 본청을 기준으로 506대가 5부제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38.65tCO2eq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소나무 13만8650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또 제주도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이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배분 기준 개선 도, 2027년도 예산 면적·인구 비례해 추가 배분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상한(실링)이 읍면동 면적과 인구에 따라 추가 배분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주민참여사업 예산은 총 376억원 규모로, 이 중 주민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제안하는 읍면동 지역사업에 128억원이 투입된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관광사업은 폐지돼 지역사업 예산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제주시 26개·서귀포시 17개 읍면동은 인구나 면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은 2억원, 읍·면은 4억원의 실링을 적용받았다. 인구 5만 명이 넘는 노형동·연동은 2억원을, 인구 1000명대 추자면·우도면은 4억원을 받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제주도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에 각 읍

면동별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실링 추가 배분을 도입했다.

배분 기준은 면적 50%, 인구 50%를 합산한 수치로 읍면동 규모에 비례해 5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배분된다.

추가 배분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으로 4500만원을 받았으며 그 뒤로 구좌읍·조천읍·남원읍 4000만원, 아라동·노형동·표선면 3500만원의 실링을 추가 배분받았다. 반면 인구가 적은 추자면·우도면과 소규모 동은 500만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제주시 4개, 서귀포시 4개 등 총 8개 읍면동에서 자치계획형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해당 읍면동은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소소법기자 sobom@ihalla.com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제주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 20일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은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매개모기 출현 시기가 지속적으로 앞당겨지고 있다며 이날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3월 27일)보다 1주일 앞당긴 3월 16일부터 감시를 시작했으며, 2일 만에 총 18개체의 모기가 채집됐고 이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 1개체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 정점을 보인다.

김채현기자



활짝 핀 튤립 봄 기운이 완연한 22일 한림공원에 튤립이 활짝 피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강희만기자

맑았던 고성천, 원인모를 악취 진동... 4면 / 제주-인천 바닷길 복원 2년째 ‘안갯속’... 5면



# 빛나는 제주

## 함께 뛰는 대한민국!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2026. 10. 16.~ 10. 22.

**제4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2026. 9. 11.~ 9.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